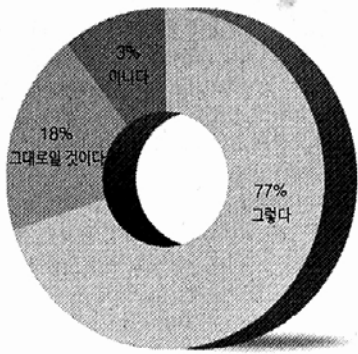


<10월 실시한 본지 일간 붓다뉴스닷컴 설문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 참가나 수련 체험 등 신행운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불교계가 가장 급히 준비해야 할 것은?

주5일 근무제

“‘이틀 휴무’ 삶의 리모델링 기회로”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7월 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5일 근무, 이틀 휴무'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일부 정부 기관이 주 5일 근무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불교계도 조계종 총무원이 새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산업 전반의 틀을 바꾸고,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여가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더불어 개인의 여가 선용과 자기 개발을 위한 레저·문화·스포츠·사회 참여 등이 이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종교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종교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계도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본지가 인터넷 일간불교신문 '붓다뉴스닷컴'을 통해 실시한 주 5일 관련 네티즌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7%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법회와 수행프로그램의 마련(49%)', '불교문화 프로그램의 정례화(32%)', '시절 안내 및 홍보 자료 마련(13%)' 등을 꼽아 불교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

도 신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52%는 '여가 및 레저 생활 즐기기를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아, 신행과 여가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불교 포교의 대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존 불자들을 위한 심도있는 수련·문화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과 잠재된 불자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 등이 동시에 이

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 월드컵과 관련 준비되고 있는 템플 스테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향후 실시될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be@buddhapia.com

불교계 대응방향

“보고 느끼고 즐기며 부처님 바로 알게”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포교의 대전환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교계가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의 귀결점은 바로 이것이다.

본지의 붓다뉴스닷컴 여론 조사 결과 외에도 한길리서치, 연합통신 등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주 5일 근무제시행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과 체험을 꼽았다. 따라서 잠재된 불자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련위주의 프로그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마다의 행편을 고려한 다양한 사찰 문화체험이 필요하다.

해인사와 같은 도심 사찰의 경우는 사찰답사, 가족 단위의 2박 3일 수행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도심포교당은 주말 공동화 현상이 대비해 지방의 기도 도량이나, 전통 사찰 등과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도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사찰과 전통 사찰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을 찾는 사람들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끌어들이므로써 적극적인 포교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소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착수한다. 포교연구소는 산사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찰들을 섭외하고, 운영 가능한 모델을 찾아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또한 제작년부터 운영해 온 수련정보센터와 각 수련회의 지도법사 스님들의 도움을 얻어 기존 수련반회에 대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포교연구소 김관태 과장은 '템플 스테이 실시로 인해 일단 일부 사찰에서 이와 관련한 숙박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등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를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찰과 인근 주민농장을 연계한 생태체험·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체험 코스 개발 등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오히려 더 소외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도해 마련해야 할 것들이다.

산사체험·유적답사·생태기행 '알찬여가' '2박3일 가족수행' 등 프로그램 다양화



불교계는 신행과 문화 체험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한다

대운사 '새벽 숲길'

해남 대운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부터 사찰체험프로그램 '대운사 새벽 숲길'을 연다.

2박 3일 일정의 주말수련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운사 새벽 숲길 프로그램은, 산사에 와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사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

만 지키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숲과 담배를 절대 삼가야 하며, 남의 이야기를 비롯한 세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반면 새벽 예불과 조석예불, 오전 명상과 새벽 숲길 산책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 하루를 마치고 자신을 살피는 글쓰기인 좌선 일기를 작성하고, 스님과의 다담 시간과 하루 한번 경내 청소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순전히 참가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는 혼자 산 내 임자를 찾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

으며, 경전읽기나 참선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하면 된다.

대운사 수련원장 법인스님은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4박5일 수련회 지도 결과 처음 산사를 찾는 이들의 대부분이 도시생활로 인한 오랜 습관으로 인해 산사에서의 엄격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운사 새벽 숲길은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어 도시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에 묻혀 여유로움을 만끽 하면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유로움 속에서 자기성찰을"



'새벽 숲길'은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생활하면서 참가자들이 최대한의 자유와 휴식을 취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5일근무제 추진현황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10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보전의 법제화·비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문제

7월부터 공공부문 적용 2010년까지 연차 시행

등을 내세워 강경 투쟁의사를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재계는 어려운 기업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98%가 주 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 혜 성
주 지 : 안혜자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종무소 02) 993-3161 ~ 3 팩스 : 02) 993-3164

대한불교
조 계 종 **화 계 사**

조 실 : 승산 행원
주 지 : 성광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 902-2663